

'광주의 로트렉' 박동신 화백 베트남 신부와 늦장가 화제

주말 자신의 작품 전시장서 300여객들 "축하 또 축하"

"평생 그림을 그렸으니, 결혼도 전시장에서 해야죠."
지난 17일 낮 12시 서양화가 박동신(49)씨의 '열정-맨드라미(Passion-Celosia Cristata)'전이 열린 광주시 금남로 대동갤러리 전시장이 예식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이날의 주인공인 '광주의 로트렉' 박씨의 결혼식을 위해서다.
평생을 괴롭혀 온 장애를 딛고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박씨는 비슷한 운명의 프랑스 작가인 로트렉(1864~1901년)에 비유돼 온 작가이다.
평소 "그림과 결혼했다"며 혼인을 미루고, 작업만 해 온 그가 이날 베트남 신부 관 티엵(Phan Thi Dep)씨와 갤러리서 이색 결혼식을 올렸다. 자신의 전시회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지역 작가 300여 명이 참석해 이색 결혼을 축하했으며, 예술에 대한 중년 작가의 열정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결혼식이 끝난 뒤 박씨와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씨는 "작품 속에서 숨 쉬고 사는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 전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혼을 '명에 광고인'으로 위촉했으며, 광주교과와 광주동중 동문회의 합방 기념으로 강은태·주승용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09년 광고인 영예대상' 수상자로 유수택 조선대학교 재단이사장과 유준상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유수택 이사장은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광주시 행정부



한편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제4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남평화, 광주전남 수채화 협회, L.M.N.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맨드라미 꽃을 일체적으로 재해석한 박씨의 신작 40여점을 소개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고인 영예 대상'에 유수택·유준상씨 동문·가족 등 참석 광고인 한마당

광주교동학교총동문회(회장 김영웅)는 18일 오전 광주교 운동장에서 동문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광고인 한마당'을 개최했다.
광주교 총동문회는 이날 행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대사 등 12명을 '명에 광고인'으로 위촉했으며, 광주교과와 광주동중 동문회의 합방 기념으로 강은태·주승용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09년 광고인 영예대상' 수상자로 유수택 조선대학교 재단이사장과 유준상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유수택 이사장은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광주시 행정부



18일 광주교 운동장에서 열린 광고인 한마당 행사에서 '2009년 광고인 영예대상'으로 선정된 유수택(사진 오른쪽), 유준상(사진 왼쪽)씨가 김영웅 광주교 총동문회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받고 있다. <광주교동학교 제공>

시장, 소방검정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유준상 이사장은 제11~14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총무, 국회경제과학위원장, 일본 와세다 대학·중국 북경대 방동교수 등을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랑스런 부고인상 이상태·이정남·김남재씨 조대부고 친선 체육대회 가져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양재근)는 18일 오전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제20차 친선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랑스런 은사님·부고인상' 시상 및 공로패 증정, 체육행사 순으로 진행했으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을 비롯해 모교를 빛낸 1천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09년 자랑스런 은사님'에는 정찬선 교사가, '자랑스런 부고인상'에는 이상태(17회) 광주동부교육청 교육장과 이정남(18회) 광주시의 사회장, 김남재(22회) 한아에스 대표이사 선정됐다.



조대부고 총동창회는 18일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제20차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식 등 행사를 가졌다.

정 교사는 19년간 조대부고에서 재직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훈조 근정 훈장 표창 등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날마다 웃는 집' 출판 강연 광주에 온 법륜스님

"얼룩진 우리사회 행복의 기반은 가족"

"남편이 바람 쐬는데..."
"고민 말고 헤어지라"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사고친다..."
"과잉보호다. 인도 같은데 데려가 죽도록 고생시켜라"
과연 명쾌했다. 은화한 얼굴의 스님에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
17일 저녁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즉문즉설(則問則說)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이야기해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사진)의 강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1000만 가족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간 '날마다 웃는 집' 출간을 기념해 정토회가 출판사 김영사와 함께 주관한 것이었다.
청중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강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행사장은 북적였다. 정읍에서 나누에서 지역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600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좌석이 모자라 통로까지 자리를 잡은 이들을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3시간에 가까운 강연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열중했다.
스님은 강연에서 "가족은 행복을 담은 그릇이다. 마음작용, 정신작용의 원리를 알면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잘 지켜간다면 인생에 어려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펼쳐진 참가자들의 즉석질문에 대한 답



번시간에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명쾌한 답을 내려 청중들에게 탄성과 웃음을 선사했으며 청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강연을 마친 후 스님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삶의 대부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주어진 소인에 충실할 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책은 가족해체나 패륜범죄 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서 행복의 기반이 되는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이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책도 문제가 있는 만큼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가정 안에서 행복 찾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마다 웃는 집' 출판 기념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며 다음 달 24일에는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연차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평화운동가, 제3세계 지원 활동가로 알려진 법륜스님은 1998년 '정토회'를 설립하고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마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행복한 출근길' '실천적 불교 사상'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금강경 이야기' '반아심경이야기' '붓다, 나를 흔들다' 그리고 즉문즉설 시리즈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기 행복전하기'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출신 10대 美 유학생이 희랍신화 소설 썼다

조대여중 3년째 渡美 그로튼스쿨 12학년 정소정양

광주 출신 10대 여고생이 서양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드'를 여성 관점에서 재구성한 소설을 써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 조대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주 그로튼스쿨 12학년에 재학 중인 정소정(17·사진)양.
정 양이 쓴 창작집 '영웅의 특징(How To Be A Hero-전남대출판부 펴냄)'은 서사시 아이네이드를 근간으로 희랍의 여신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양은 희랍신화의 대표적인 여신들을 화자로 등장시켜 직접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게 하는 등 여성성과 영웅과 관련한 숨겨진 생각의 밑그림들

을 보여준다.
정양은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희랍어 등 4개국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등 미국 유학 3년만에 불어와 라틴어 수업을 건너뛸 정도 뛰어난 어학실력을 갖추고 있다.
정양은 라틴어를 배운 지 3년만에 서양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아이네이드'를 원어로 읽고, 거기에 등장하는 비너스, 미네르바, 주노 등의 입을 빌려 영웅 아이네이드의 방랑의 길을 분석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영웅 아이네이드는 이 책에서는 영웅인지 나약한 한 인간인지, 또는 그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작가 재규어 시인은 "희랍신화에 매료된 한 여고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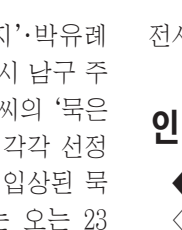


자신의 청춘시대 지적 열정을 보기 좋게 펼쳐낸 귀엽고 생기발랄한 책이다"며 "현대 인류의 문명과 인간성을 조망하는 데 희랍 신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 어린 한국인 여고생의 신화와의 사랑, 분투에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정 양은 "학교에서 원문 서사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주 고 싶었다"며 "모국어로 썼지만 언젠가 영어로도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양은 최근 교향 베네딕토 16세의 저서 '신앙·진리·관용'을 번역, 출간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종후 교수의 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라도 최고 목은지'에 류호영씨 목은김치

광주김치축제추진위원회는 류호영(광주 북구 안암동·사진)씨의 목은김치를 올해 '전라도 최고의 목은지'로 선정했다.
광주김치축제추진위원회는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해 15명이 참여한

'전라도 목은지 콘테스트'에서 류씨의 목은김치가 최고작으로 뽑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2위는 진도군의 '목은지 식당'이, 공동 3위는 김영이(담양)씨의 '맛있



목은지'·박유례(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의 '목은지'가 각각 선정됐다. 입상된 목은지는 오는 23일 ~ 11월 1일까지 김치주제관내 팔도김치문화관에

전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형기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복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정근채·임화주씨 차남 형준(인천세무사)군 김동현(전남일보 사 진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더 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승환·임종심(물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아시아나홀)
▲유병호·이순복씨 아들 재철군 김용하·노명란씨 딸 미나양=24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유순서씨 장남 지훈군 오대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 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욱·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흥보탑장)군 박래선·

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용연·박순철씨 장남 상호군 최현주(광주시 환경복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해미양=11월1일(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피로연 23일(금) 오후 6시 에비루션웨딩컨벤션 2층(아펠리아홀)

등창·동문회

▲재광 발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개최=19일(월) 오후 6시 농성동 가메옛날광풍어. 062-362-1616.
▲북성중 19회 동창회(회장 손영환) 율례회=19일(월) 오후 7시 만리화. 062-226-4447.
▲재광 전주 영생고 율례회(회장 이종욱)=20일(화) 오후 7시 광산구 월계동 청석골. 062-971-7717.

▲광주보건대학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한국도자공사빌딩 11층(삼상생명) 016-611-2858.
▲재광의신중학교 총동문 가족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OB백주 광주공장 운동장. 017-511-404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동동 백립약국 탐정형외과 옆 베네수. 062-266-6657.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

비, 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net.or.kr/)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특화환자. 두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모집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력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모집=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합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분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분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당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등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당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아간반(오

부음

▲권중복씨 별세 태호(광주교김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국형 종합서비스 프리드
15년 연대중앙상조
가임문의 1566-4499